하나님의 운동

열방을
제자화하는
하나님의 운동

Motus Dei

저자 워릭 파라 외

윌리엄 캐리 퍼블리싱(William Carey Publishing).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

Motus Dei: The Movement of God to Disciple the Nations
© 2021 by Warrick Farah. All rights reserved.

Published by William Carey Publishing
10 W. Dry Creek Circle
Littleton, CO 80120 | www.missionbooks.org
William Carey Publishing is a ministry of Frontier Ventures
Pasadena, CA 91104 | www.frontierventures.org

하나님의 운동(Motus Dei): 열방을 제자화하는 하나님의 운동

초판 1쇄 인쇄: 2024년 3월 20일
초판 1쇄 발행: 2024년 3월 29일

저자: 워릭 파라 외
번역자: 김경래, 김경환, 김송식, 김종일, 문모세, 박스마엘, 박택수,
양덕훈, 이천, 정빌립, 조이든, 진토롱, 한성호(가나다순)
펴낸이: 김종일
발행: 도서출판 라비사(Rabisa Books)
출판등록: 제399-2015-000003호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로97번길101. 114-505
인쇄: 세줄기획
주문전화: 010-9290-8851
이메일: rabisa.books@gmail.com

ISBN 979-11-980120-7-4 93230

값 **19,000** 원

ⓒ Rabisa Books 2024

Islamic Ministry Institute(이슬람 사역연구소)는 William Carey Publishing과 독점 계약을 맺고
한국 영토내에서 이 저작물을 한국어로 출판하고 배포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제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윌리엄 캐리 퍼블리싱(William Carey Publishing).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

1장
최근에 진행되는 하나님의 운동: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 입문서

워릭 파라(Warrick Farah)

20세기 한세기 동안 전세계 인구는 4배가 늘었다. 전체적으로 기독교는 이러한 세계적 인구 성장에 발맞추어 전세계 인구의 약 30퍼센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북반구(유럽과 북미 대륙을 지칭, 역주) 교회 숫자가 감소하고 남반구(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남미등 제3세계를 지칭, 역주) 지역의 교회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로버트-Robert 2000; 존슨-Johnson과 정-Chung 2009). 하지만 매년 수 만명의 무슬림이 그리스도를 믿는 반면 또 다른 3,550만 명의 무슬림들이 태어난다(퓨 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 2017). 수만명과 수백만명은 엄청난 차이다. 이러한 상황은 힌두교도 사이에서도 비슷하고 불교도 사이에서는 그 수의 차가 더욱 심각하다. 세계 기독교연구센터(The Center for the Study of Global Christianity)는 전도되지 않은 7만명의 사람이 매일마다 전 세계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추정한다(존슨-Johnson과 줄로-Zurlo 2019). 열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경배 받는 것을 보고자 하는 예수님의 신실한 사람들에게 가혹한 현실은 전 세계가 매년 급속하게 더 "미전도(unreached)" 상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팍스-Parks 2017).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운동" 패러다임은 복음주의 선교계에서 중요한 대세가 되었다. 이와 관련된 여러 논문과 책 그리고 훈련이 다양한 선교계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선교 단체마다 큰 꿈을 꾸는데 어느 단체는 지난 2018년 무슬림 인구의 10퍼센트가 다음 10년 안에 "전도화"되기를 기도하자는 계획을 출범시켰다.[1)]

그리고 때로는 세계 모든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운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듯이 생각되기도 한다. 연구자들은 7,700만 명 이상의 신자로 구성된 1,000개 이상의 그리스도 운동이 존재한다고 기록했는데(롱-Long 2020) 이 운동 대부분은 이전에 교회가 없던 곳에서 일어났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운동"이 발생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히긴스-Higgins 2018, 21).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활동의 한 가운데서 잠시 멈추어 서서 이 모든 현상을 반추해 보면 좋겠다. 실제로 이 하나님의 운동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특수한 지역의 다양함과 복잡성속에서 발생하고 있고 또한 그들 지역의 구체적인 사역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운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선교학자와 신학자, 하나님의 운동을 실행하는 선교사, 그리고 심지어 이런

1) https://1010prayerandfasting.com/을 참조하라. 이것은 실질적으로 매년 1,900만명의 무슬림이 10년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 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수치를 의식하든 안 하든지 그 같은 담대한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운동이라는 방향성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윌리엄 캐리 퍼블리싱(William Carey Publishing).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

주제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이 간결한 소개의 글을 통하여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이 하나님의 운동의 존재 자체를 비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출현을 과도하게 과장하지도 않는다.

필자는 한 논문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소개되었던 교회 개척 운동(CPM-Church Planting Movements)과 교회 개척을 위한 제자화 운동(DMM- Disciple Making Movements)[2]의 선교학적인 관점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하였다(파라-Farah 2020b).[3] 필자는 본 장에서 이 부분을 더 깊이 다루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운동을 교회사적, 교회론적, 사회학적 그리고 선교실제적 측면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의 의도는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운동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이루기 위한 선교학적인 틀을 개발하는 것이다.

역사적 관점(Historical Perspective)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정체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운동이다. 범세계적 운동으로서 기독교는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성공적인 운동이다.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로 시작하여(눅 6:12~16) 칠십 명을 파송하셨고(눅 10:1~24) 오순절에 삼천 명이 더해졌으며(행 2:41) 그 수가 날마다 계속해서 늘어났다(행 2:47).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의 운동으로 시작한 기독교는 사도들이 사역에 대한 접근 방식을 새롭게 하면서 이방인에게 흘러 들어갔다(행 15장; 고전 9:21).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2년 동안 있을 동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앤듀르 월스(Andrew Walls)가 말했듯이 "문화적 경계를 넘어간 것은 역사적 기독교의 생명줄이 되어왔다"(2002, 32). 다양한 변환을 거쳐 형성된 다양성 속에서 "땅 끝까지"(행 1:8)라는 사명은 다른 어떤 운동보다 더 많은 장벽을 넘었고 더 많은 문화들의 "본거지(home)"가 되었다.

초대교회의 증식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는 최대 "백 배"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가르치셨다(눅 8:4~8, 11~15).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초대 교회의 극적인 성장을 강조하면서 "크게"(6:7), "날마다"(16:5), "힘있게"(19:20)와 같은 수식어들을 사용했다. "누가는 복음서의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실제로 성취된다는 측면에서 의도적으로 복음이 놀랍게

2) 어떤 사람은 교회개척을 위한 제자화 운동(DMM) 또는 훈련자를 위한 훈련(T4T)과 같은 전략으로 나타난 결과로서 교회 개척 운동(CPM)이라고 명칭한다(콜스-Coles와 팍스-Parks) 2019, 314–15). 이 장에서 제자도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교회개척을 위한 제자화 운동(DMM)이나 훈련자를 위한 훈련(T4T)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는 교회 개척 운동(CPM)(교회 개척 운동(CPM)으로 이어지는 전략)과 웨슬리안 부흥과 같은 다른 운동(베빈스-Bevins 2019)을 제자화 운동이라는 큰 흐름으로 사용하는 것을 주저한다. "제자도"라는 용어가 수동적인 과정이나 종교적으로 소비주의적인 교회론과 연관될 때 건강하지 않은 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3)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ojs.globalmissiology.org/index.php/english/article/view/2309/5306

윌리엄 캐리 퍼블리싱(William Carey Publishing).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

널리 퍼져가는 것을 기록하려고 노력했다"(오트-Ott 2019, 112).

마이클 쿠퍼(Michael Cooper)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이 가정 교회를 통하여 제자가 급속하게 확장되는 초창기 예수 운동을 기록하고 있다고 믿는다. "사도행전에서의 교회 개척 운동은 가정 교회에 모이면서 더 많은 제자를 생산하도록 사도로부터 위임받은 신실한 예수님 제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형성된 것이지 처음부터 복음 확장을 위한 전략을 세워서 된 것이 아니다"(2020, 19). 즉 하나님의 운동은 전략의 결과가 아니라 먼저 제자를 만드시는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한 열정의 결과이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오늘날의 알바니아)까지의 지역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15:23)라고 했고 로마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다(15:24).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15:19)라고 단언한 유일한 이유는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증식하여 자신이 시작한 사역을 완성할 것이라고 바울이 가정했기 때문이라고 크레이그 오트(Craig Ott)는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이것 외에는 1세기 동안 기독교의 극적인 수적 성장과 확산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2019, 114).

로드니 스타크(Rodney Stark)는 서기 300년까지 로마 제국에 63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다고 추정하는데(1996a, 7) 쿠퍼(Cooper)는 약 550만 명(2020, 32)이었다고 추정한다. 이 두 사람의 추정치 모두 로마 전체 인구의 약 10퍼센트 정도였으니 혹자는 이것이 전체 로마 사회에 극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시작점이었다고 한다(씨에-Xie와 그외 2011; 쿠퍼-Cooper 2020, 29). 초점은 예수 운동의 속도가 아니라 더 많은 지도자가 더 많은 봉사 활동을 위해 더 많은 신자를 준비시킨 것이다(엡 4:11-12).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의 기도제목에서 언급한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앞으로 달려가는 것"과 "주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은 초대 기독교에서 보여주는 성경적 패턴이다. 여러 면에서 건강하지 않는 성장은 성경적이지 않다. "복음 전도의 긴박성과 건전하면서 성숙한 성장 사이에 반드시 균형이 있어야 한다"(오트-Ott 와 윌슨-Wilson 2010, 77).

오늘날 일부 교회 개척 운동(CPM) 이론가들이 초대 기독교 운동이 반드시 "교회 개척 운동(CPM)"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현대의 교회 개척 운동(CPM)/교회개척을 위한 제자화 운동(DMM) 전략을 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읽고 분석하는 것은 시대 착오적인 것이다(우-Wu 2014). 역사가 필립 젠킨스(Philip Jenkins)는 초기 예수 운동이 서기 200년쯤까지는 우리가 기독교 교회로 간주하는 형태로 통합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2018). 2세기의 예수 운동은 여전히 매우 다양했고(나중에 초기 교회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많은 "기독교" 집단을 포함하여) 로마 제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핍박과 전염병이 창궐했던 시대의 변화 흐름에 따라 급속하게 변동하였다.

초대 기독교 가정 교회는 성경의 복음서와 서신서를 신실하게 읽었다. 복음서와 서신서의 본문을 연구하고 다양하게 인용한다는 점에서 초대 기독교 운동은 분명히 "학구적인" 운동이었다(후르타도-Hurtado 2016, 105). 그러나 27권의 신약성경은 4세기 말까지 공식적으로 정경화되지 않았다. 이 "예수 운동"은 2세기와 3세기에 조직적인 전도와 교회 확장 전략을 통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다. 고통과

윌리엄 캐리 퍼블리싱(William Carey Publishing).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

박해에 직면하여 끝까지 인내하면서 반문화적으로 보였지만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였던 삶의 방식을 통해 진행되었다(크레이더-Kreider 2016, 9). 기독교 운동이 항상 모든 지역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일부 운동은 종종 쇠퇴하였고 때로는 소멸되었다. 전반적으로 기독교 운동은 지속적인 성장 보다는 성장과 쇠퇴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진행되는 연속적인 확장이다(월스-Walls 2002, 67).

현대 선교학의 하나님의 운동 정신

현대 선교학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운동 정신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운동에 대한 선교학이 어떻게 현대 선교 전략과 목표에 흡수되기 시작했는가? 1793년 윌리엄 캐리(William Carey)가 인도(India)로 떠난 지 한 세대 후 선교단체는 "기독교 세계(Christendom)"의 외부 세계 즉 많은 비기독교적 상황속에서 설립된 새로운 교회를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행정 원칙으로서 일반적으로 선교 지도자 루퍼스 앤더슨(Rufus Anderson)과 헨리 벤(Henry Venn)이 주창한 것으로 알려진 "삼자 원칙"은 외국 선교 단체가 아닌 자치적인 토착 교회가 "세계 선교 발전의 수단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셴크-Shenk 1981, 171). 이 삼자원칙은 교회가 스스로 자립하고 자전하며 자치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즉 식민주의의 영향과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삼자 원칙을 받아들인 존 네비우스(John Nevius)는 1890년 과거와는 급진적으로 다른 이 삼자 원칙을 조선 선교에 채택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또한 그는 기독교인은 회심하기 전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 체계적인 성경공부에 기초한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첨가했다(핸디-Handy 2012, 6-7). 그 이후 한국 기독교 운동에 기폭제가 된 이 삼자원칙은 네비우스 방법(로-Ro 2000, 677)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통적인 "선교 기지(mission station) 접근 방식" 은 여러 지역과 상황에서 지속되었다(맥가브란-McGavran 1955, 68).

20세기 초에 롤랜드 알렌(Roland Allen)은 유명했던 그의 책 "선교사의 방법: 바울의 방법인가 우리의 방법인가?"(Missionary Methods: St. Paul's or Ours?)(1912)를 통하여 네비우스(Nevius) 방식을 더욱 발전시켰다. 알렌(Allen)은 동시대인에게 전통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토착 교회를 탄생시킬 수 있는 성경적 원리에 다시 초점을 맞출 것을 주장했다. 그 시점에 여러 상황에 있는 많은 수의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 일이 발생하였고 그것이 책으로 기록되었는데 그 예가 와스콤 피켓(Waskom Pickett)의 "인도의 집단 회심 운동"(Christian Mass Movements in India)(1933)이다.

선교 인류학자인 폴 히버트(Paul Hiebert)는 이 책을 평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중적 개인 회심(Multi–Individual Conversions)을 형성케 한 이 하나님의 운동은 지속적으로 교회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의 변혁을 이루게 했다. "피켓(Pickett)은 사람의 삶이 변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삶의 많은 결정도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에 의해 강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새롭게 믿은 신자는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지 않았고 오히려 공동체 전체가 변화되었다"(2008, 328).

소위 "교회 성장 운동"[4]의 아버지라 불리는 도널드 맥가브란(Donald McGavran)도 피켓(Pickett)의 영

4) 맥가브란의 교회성장의 원래 목적 즉 사례비를 받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가정 교회를 통하여 교회성장운동을 지향

윌리엄 캐리 퍼블리싱(William Carey Publishing).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

향을 많이 받았다(갤러거-Gallagher 2016, 66). 맥가브란(McGavran)은 현상학적 관찰을 기초로 하여(맥가브란-McGavran 1955, 76), 피켓(Pickett)의 생각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동일종족 집단회심운동"(히버트-Hibbert 2012, 190)이라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알렌 티펫(Alan Tippett)은 맥가브란(McGavran)이 "동일종족 집단회심운동(People Movement)"라는 용어를 만들었고 또한 종족 그룹들의 연계성이 집단회심운동을 주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한할 수도 있음을 강조했다고 하였다(1987, 253). 맥가브란(McGavran)은 "하나님의 가교"(The Bridges of God)라는 책에서 "개인뿐 아니라 종족과 부족 그리고 카스트 계층 등의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려고 했다(1955, 1). 그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동질집단원리"(Homogeneous unity principle-HUP)라는 이론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사람은 인종과 언어 그리고 카스트 계층의 장벽을 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1970] 1990, 163).

전략으로서 르네 파딜라(René Padilla)는 동질집단원리(HUP)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판했는데 즉 카스트 계층 간의 조화와 화해의 사역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고 또한 그러한 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수와 사도의 모범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1982, 29). 그러나 파딜라(Padilla)와는 반대로 문제는 사람이 자신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하고 외국적인 신앙의 다양한 표현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복음에 대하여 현지인이 자신의 방법과 표현으로 반응한다면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를 표현하는 교회를 개척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세계 기독교의 성숙함을 위해 적합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다.

즉 전 세계 교회의 다양한 특징은 성경적 신앙을 위협하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의 연속성이라는 특징을 실현한다(플렛-Flett 2016, 19). 맥가브란(McGavran)의 동질집단원리에 대한 현상학적 관찰은 집단회심운동이 한 동질 민족-언어 단위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해 더욱 균형을 이룬다(개리슨-Garrison 2004, 2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운동으로서의 기독교는 경계를 넘어 다양성을 통합하기 때문이다(행 11:20; 13:1; 갈 3:28).

최근 몇 년 동안 빌 스미스(Bill Smith)와 빅터 존(Victor John)(2019), 데이비드 왓슨(David Watson)(2014), 잉(Ying), 그레이스 카이(Grace Kai) 및 스티브 스미스(Steve Smith)(2011)와 같은 리더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운동 전략을 바탕으로 엄청난 수의 교회를 개척하였고 또한 그 지역 사회를 변화시켰다.

오늘날 데이비드 개리슨(David Garrison)과 같은 연구자는 그의 저서인 "교회 개척 운동"(Church Planting Movements)(2004)과 "이슬람 세계에 부는 바람"(A Wind in the House of Islam)(2014)을 통해 남반구에서 일어나는 예수 운동을 기록하였다. 개리슨(Garrison)에 따르면 "교회 개척 운동이라는 용어를 누가 처음으로 만들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이는 도널드 맥가브란(Donald McGavran)의 획

한다는 원리는 후에 서구 교회에서 구도자의 필요에 민감하고 매력적인 교회를 통하여 교회확장을 이룬다는 목적에로 적용되었다. 자체 교회성장에만 관심을 갖는 이러한 사실들을 한탄하면서 맥가브란(McGavran)은 교회성장이라는 용어보다 교회증식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하였다(피트-Fitts 1993, 12). 교회성장운동은 다양한 신학교와 학회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건설적인 비판뿐만 아니라 실용주의적 마켓팅 프로그램일 뿐이다 종교적 소비주의를 확산한다 숫자와 형식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 등등의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

윌리엄 캐리 퍼블리싱(William Carey Publishing).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

이 미리보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을 구매하시려면 다음을 방문해 주세요:

https://missionbooks.org/products/korean-motus-dei

윌리엄 캐리 퍼블리싱(William Carey Publishing).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